日오염수 방류 초읽기…해수부, 국민 불안감 해소할까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진행…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 도입
염전 대상 방사능 검사 대폭 확대…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일본 출발 선박 평형수 교환 강화…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활용 조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정이 다가오면서 천일염 사재기에 나선 시민들이 생겨나는 등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광주일보 6월 5일 8면〉 정부가 이 같은 우려로 인한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장 수산물 소비 급감이 현실화하지는 않았으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수산물·염전 방사능 검사 건수 늘리고 수입 수산물 관리 강화=11일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원양산, 연근해산, 양식산을 포함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한창이다.

지난해 5441건이었던 방사능 검사를 올해 8000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시작한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2만9000건에서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었다.

국민이 직접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도 지난달 30일부터 운영 중이다. 국민 누구나 해수부가 별도 개설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품목과 지역을 선택해 주 1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2013년 9월부터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와 함께 방사능 검사를 한다.

해수부는 이에 더해 방어, 가리비 등 총 21개 품목의 유통이력을 점검하고 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항목도 오는 7월부터 기존 15개에서 20개로 늘린다.

해수부는 이달 말까지 해경·지자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일본산 등 국민 우려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데 이어 2차 전수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해수부는 일각에서 후쿠시마 인근 해역 어류가 우리나라 연안 내에서의 포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류의 분포, 회유경로, 조업위치, 해류의 이동 등을 고려했을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0여개 천일염 생산 염전을 대상으로도 매달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염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6~7월부터 염전 대상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평형수 조사에 이동형 방사능 장비 투입…해수분석도=후쿠시마 등 6개 현에서 주입된 선박 평형수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거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탱크에 주입하는 바닷물을 말한다.

해수부는 현재 원전 사고지에서 보다 가까운 후쿠시마, 미야기 등 2개 현에서 출발한 선박에 대해선 평형수를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아오모리, 이와테, 이바라키, 지바 등 나머지 4개 현의 경우 평형수 표본조사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해수부가 조사한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해수부는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 선박평형수 교환조치 대상을 현행 2개 현에서 6개 현 전체로 확대하고, 대상 선박들이 국내에 입항하면 교환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도 전국 항만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차후 오염수가 방출되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해 신속 검사를 하고, 기존의 실험실 정밀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수부는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항만·연안 52개 조사정점(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고정된 위치)에 대한 해수·해저퇴적물·해양생물 방사능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여름철 식품안전 특별점검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왼쪽)는 지난 1일부터 '식품안전 합동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다. 농협 광주본부는 오는 23일까지를 식품안전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가공공장, 직거래장터,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및 식육판매장 등 관내 농축산물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협경제지주 마트사업호남지사, 점장협의회 정기총회

호남·제주권역 112명 참석
PB상품 확대 등 마트 활성화 논의

농협경제지주 마트사업호남지사는 지난 8일 순천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호남·제주권역 하나로마트 점장 1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장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참가자들은 올해 농협경제지주 주요사업을 공유하고 PB상품, 농협김치, 농협가공제품 등 판매확대를 통한 마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철저한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살 맛 나는' 하나로마트 구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염동준 지사장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기준 변경으로 인해 하나로마트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마트사업호남지사는 물류배송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매장운영 컨설팅 등 사업지원을 통해 호남·제주권 하나로마트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연장

해수부, 30일까지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접지불제(직불제) 신청을 1개월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어선원에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신청 마감일은 지난달 31일이었다.

지난 9일 기준 약 1만8800개 어가, 어선원 약 5600명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뒤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T, 화훼산업·로컬푸드 활성화 모색

'K-농산어촌 한마당'서 홍보관 설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3 K-농산어촌 한마당'에서 화훼산업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모색했다고 11일 밝혔다.

aT는 전시장 내 화훼홍보관과 로컬푸드 홍보관을 설치해 ▲한국형 월별 탄생화 ▲반려식물 등 전시·홍보 ▲미니 직매장과 밭모형 설치 ▲로컬푸드 체험 등으로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김춘진 aT 사장은 "화훼산업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가공과 체험·관광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6차 산업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사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은 물론, '잘사는 농어촌, 살고싶은 농어촌'을 만드는데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2023 K-농산어촌 한마당'은 국회·정부·공공기관·지자체·기업 등이 참여해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농협 광주본부·고향주부모임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은 최근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회장 윤정숙) 회원들과 함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있는 참빛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고성신 본부장, 임이엽 광주자원봉사센터장, 윤정숙 회장 등 20여명이 참여했으며, 농협광주본부는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로부터 10㎏ 쌀 50포를 지원받아 고향주부모임 회원, (사)솔잎쉼터 봉사회원들과 함께 소외계층 홀몸 어르신 100여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이 날 점심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은 "식사와 함께 가족처럼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줘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